이 윤 행 함평군수

# "돈버는 함평, 서남해안 경제 중심 도시 건설 최우선"



"군민이 돈 버는 함평, 서남해안 경제 중심 함평 을 건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윤행 함평군수는 최근 광주일보와의 인터뷰 에서 "기해년 새해는 민선 7기 군정이 그동안의 준 비과정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출항하는 첫 해"라며 "지난해까지 추진했던 사업들에 올해 새롭게 시작 하는 사업들까지 잘 버무려 군민이 돈 버는 함평, 서남해안 경제 중심 함평으로 도약하자"고 말했

이 군수는 "지난 1년 동안 우리 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 침체된 지역경기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서도 국·도비 확보,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군민이 살기 좋은 정주여건 조성에 방점을 찍고 '평화롭고 살기 좋은 함평' 건설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그 결과 국비 875억여 원, 도비 17억여원 등 총 892억여 원에 달하는 국·도비를 확보하는가 하면, 4만 5000대 가량의 렌터카 등록 업무 협약 체결, 함평읍 시가지 공영 주차장 준공, 농·어촌버 스 단일요금제 시행, 원스톱 민원처리서비스 시 행, 농어가수당 지급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착수 등 행정 전반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고

이 군수는 먼저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 해 인구증가와 기업인프라 조성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다.

빛그린산단 자동차 생산라인 유치 함평나비축제 '엑스포'로 세계화 '인재양성기금' 100억 확대 조성

높은 분양율에 비해 50%대의 저조한 실가동률 을 보이고 있는 동함평산단과 해보농공단지에 대 해 조기착공 독려, 양도·양수 유도 등의 적극적인 조치로 지역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킨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와 관련해서는 오는 2022년까지 월야면 빛그린 국 가산업단지를 완공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자 동차 생산라인 유치, 월야면 읍 승격, 1만호 규모 의 근로자 전용 민자주택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할

또 일자리 컨트롤 타워 운영으로 청년과 노인, 주부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현장창업보육센 터를 통한 기업 교육지원으로 교류와 활력이 넘치 는 역동적인 함평을 만들겠다고 이 군수는 밝혔

함평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관광분야에 대해 서도 서해안과 접하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내륙 과 해안 모두를 적극 활용한다는 생각이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함평나비축 제를 오는 2022년에 함평나비엑스포로 격상시키 고 2020년에는 함평천지 드림 빛 축제를 개최한다 는 계획이다.

영광 칠산대교부터 함평 돌머리까지 약 20여 km에 이르는 해안일주도로를 건설하고 용천사에 서 영산강으로 이어지는 사이클로드 및 가로수길 조성, 해수찜 치유센터 건립 등을 차례로 추진해 사계절 찾고 싶은 함평을 이룩하겠다는 목표다.

군민의 실질적인 삶과 연관된 교육과 복지분야 에 대해서도 앞으로의 구상을 밝혔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기본 으로 고령인구가 많은 군 실정에 맞게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며 일반진료, 치과진료 등각 종 검사는 물론, 이·미용, 농기계 수리, 수도?전기 점검에 이르는 통합복지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마을 경로당 확충·정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 급, 노후 건강기구 교체, 다채로운 문화여가프로 그램 제공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평소 강조했던 교육 분야는 인재 육성 기조를 분

이 군수는 "글로벌 인재육성에 자양분이 될 인 재양성기금을 2024년에 75억원, 2030년에 100억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함평영재교육원 및 외국어

### 2019년도 주요 사업은

- ▲군민을 우선하는 참여 행정 구현
- ▲소외 없이 행복한 복지공동체
- ▲기술로 승부하는 고품질 농어업 육성
- ▲산업기반 확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체류형 관광 구축으로 돈 버는 관광 함평 실현

▲외지인도 찾아오는 명품 교육 도시 구축

체험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내 두각을 나타내고 있 는 인재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군민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교육역사 박물관 유치도 전남도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 계를 구축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군 자체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함평역사자료관 설립은 군립도 서관 내 곤충생태체험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안 등 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윤행 함평군수는 "우리 함평은 고요한 듯 숨 가쁘게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고 있다"며 "올 한해도 겉만 번지르르한 전시행정, 단순히 숫자만 늘어나는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듣고, 이를 적기에 제공하는 군정으로 군민의 믿음에 보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kwangju.co.kr

## 영광군, 안마도에 식수 전용 지하수 저류지 설치

국내 최대 100억 투입 3월 착공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국내 최대 규모의 '식수 전용 지하수 저류지'가 설치된다.

독일과 일본 등에서 먼저 도입한 '지하 수 저류지'는 도서(섬) 해안지역 지하에 차수벽을 설치해 바다로 흘러가는 지하수 유실을 막아 양질의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 보하는 친환경적인 시설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환경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해 온 '안마도 식수전용 지 하수 저류지'설치사업이 오는 3월 착공한 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영광군과 총 사업비 100억원 중 국비 90%·군비 10%를

각각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안마도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 시범사업인 '지하수 저류지' 설 치사업은 오는 2020년 준공된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위탁받아 해안가 지 하에 차수벽 460m, 취·배수시설 5곳 등을 설치하고, 1일 100t의 생활용수를 공급하

지하수 저류지 시범설치 사업지인 영광 군 안마도에는 주민 180여명이 거주하고

하지만 사용 중인 해수담수화 관정이 이 상 기온의 영향으로 매년 지하수위가 낮아 지면서 생활용수 사용이 빈번한 여름철에 는 물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



제철을 맞은 흑산 홍어가 신안군수협 흑산지점 위판장에 가득하다.

# '겨울철 별미' 흑산 홍어 "대풍이요"

하루 1000여마리 이상 위판 8kg짜리 암컷 30만원 거래

'겨울철 별미'인 신안 흑산 홍어가 제철

을 맞아 만선 풍어다.

신안군수협 흑산지점은 지난 14일 1800 마리에 이어 15일 1000여 마리를 위판하 는 등 풍어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어획고라

홍어 풍어 속에 가격은 하락했다. 8kg짜리 암컷 상품 한 마리 값은 30만원

대로 평년의 절반 가격으로 내려갔다.

수협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홍어 소비 가 줄어든 상황에서 풍어로 가격은 하락했 다"면서 "지금이 제철을 맞은 홍어를 먹을 적기"라고 말했다.

신안 흑산 홍어는 육질이 찰지고 부드러 우며 담을 삭히는 효능이 뛰어나 기관지 천식, 소화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 '1004섬 신안' 해양문화·예술자원 활용 '문화재단' 설립

신안군은 '1004섬 신안'의 고유한 해양 문화와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신 안문화재단'을 설립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안군은 신안문화재단이 설립되면 1읍 면 1미술관, 박물관 조성과 군민들의 문화 적 자긍심 고취 및 향유기회 확대에 보탬 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군에 따르면 천사대교의 개통과 야간 여 객선 운항 등으로 신안 섬들에 대한 접근

성이 대폭 개선되는 시점에서 섬마다 조성 된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등의 문화시설 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전문적 재단 설립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을 준비하고 있 으며, 재단 출연금 2억원을 2019년 1회 추 경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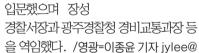
# "치밀한 업무 처리 주민안전 책임질 것"

정재윤 영광경찰서장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진도 출신인 정 치밀하게 임하는 마음가짐으로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 81대 영광경찰서장으로 취임한 정재윤(56) 서장은 "동료 간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모두가 자존감을 가지고 만족해하는 직장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장은 목포대학 교를 졸업하고, 1990년 간부후보 생 38기로 경찰에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

# 무안군,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 조사

무안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 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써 주 민에게 행정편익을 제공하고자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중점적인 내용은 ▲주민등록사항과 실 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조사 ▲주거용 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 입신고 여부 등이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 고 수협은 설명했다.



